

도 사업규모를 여러 개로 분리하여 사업시행자가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공공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준공 후 국가에 귀속되는 SOC자본시설에 대한 출자비용 규정을 완화하여 공공법인과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제 3섹터를 설립하여 항만을 건설하고 여기에 소유되는 재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해 항만재원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자본에 의한 항만재원의 확보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외국자본은 국내 여러 산업에 많이 유치되고 있으나 항만부문에서는 저조한 편이다. 이는 항만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투자기업이 항만운영업체에 한정되어 있었고, 이들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및 운영전략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이 외국인 투자 부진의 하나의 이유였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시 이들 외국의 항만운영업체의 경영방식 등을 검토하여 유리한 입장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신인도 부족과 정책일관성 문제를 제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 낮은 수익률을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에 불리한 국내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기업의 불신감을 없애도록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만재원은 한가지 방법으로만 조달되는 것이 아니라 각 재원이 유기적으로 구조화되어 항만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족한 항만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재원들을 최적으로 구성하여 항만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이다.

10. 우리나라 항만개발에 있어 친수공간 확보에 관한 연구

무역학과 류 미 현
지도교수 이 수 호

우리나라는 항만건설이나 재개발 시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항만의 수변은 해상운송과 관련된 집하장과 storage등의 개발만으로 치우쳐져 일반시민과 항만과의 괴리는 참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항만관련 친수공간에 대해 일부에서 논의가 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생소한 개념이다.

본 연구는 항만의 기존인식들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항만개발 시 그와 관련된 친수공간의 중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세계 주요 선진항만 도시들의 항만재개발이나 신항만 건설시 친수공간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아직도 생소한 친수공간에 대한 개념자체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세계 선진항만의 친수공간 개발의 성공사례와 앞으로 개발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상기에 언급한 모든 외국사례들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그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으면서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년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이 합쳐져서 만들어 졌으며 개발계획 또한 세밀하고 집요하였다. 항만이란 거대한 사회간접자본을 이용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는 것이다. 항만이란 사회간접자본을 새로이 건설할 때 그 항만을 더욱 가치있게 하거나, 아님 노후항만을 재개발 할 때에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랬기에 오랜 시간과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앞서야 그 엄청난 자본이 수포로 돌아가

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항만별 친수공간의 개발계획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항만관련 친수공간의 개발 방향과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도 향후 항만개발계획에 항만관련 친수공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각 항만별로 친수공간 개발계획 사례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 예산책정에서는 민자부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친수공간에 대한 관련 법규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항만과 관련된 친수공간이라 함은 거의 관심 밖의 문제이다.

1990년대 들어와서 연안역 통합관리를 위한 문제가 제기되고 1993년에 들어서 해양발전종합계획수립기획단 회의가 열렸으며, 1996년 8월에는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는 등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연안역에 관계된 각 부처의 사업들이 다분화 되어있어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의 부재와 연안역의 친수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의 내용과 범위에 따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해안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치 못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산신항만이나 광양항과 같이 새로 건설되어 개발되는 항만도 많지만 노후화 되어 재개발에 들어가야 하는 항만 또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이 민영화·지방화 되는 과정에서 항만내 친수공간은 시민들과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항만개발을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항만친수공간 사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거의 처음 실시되는 새로운 사업 중의 하나일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 개발되었던 여타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으면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항만이 단순히 운송과 물류집적 공간의 시대는 지났다.

모든 일에는 첫단추가 중요하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항만친수공간 사업은 시기상 지금이 첫단추인 것이다.

지금껏 해왔던 우리나라의 SOC사업에서의 실패와 성공을 모두 세밀히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잘 본받아 계획되고 개발되며, 시행되어야겠다.